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24 주차 (11:28~11:44)

(2015년 7월 5일 - 2015년 7월 11일)

(제 3 권 24 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24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7 월 5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주일)

오늘의 본문 (요11:28~37)

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4.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원문해석하기

- (28절) 그리고 이 말을 한 후 (Καὶ τοῦτο εἰποῦσα)
그녀는 떠나서 그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ἀπῆλθεν καὶ ἐρώνησεν Μαριάμ τὴν ἀδελφὴν αὐτῆς λάθρᾳ εἰποῦσα·)
선생님이 도착하셔서 너를 부르다 (ὁ διδάσκαλος πάρεστιν καὶ φωνεῖ σε.)
- (29절)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듣자마자 (ἐκείνη δὲ ὡς ἤκουσεν)
급히 일어나게 되어 그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ἠγέρθη ταχὺ καὶ ἦρχετο πρὸς αὐτόν.)
- (30절) 예수님은 아직 그 마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디다 (οὐπω δὲ ἐληλύθει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ὴν κώμην.)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마르다가 그를 만나던 그 장소에 계셨습니다
(ἀλλ' ἦν ἔτι ἐν τῷ τόπῳ ὅπου ὑπήντησεν αὐτῷ ἡ Μάρθα.)
- (31절) 그런데 그녀와 함께 집에 있어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οἱ οὖν Ἰουδαῖοι οἱ ὄντες μετ' αὐτῆς ἐν τῇ οἰκίᾳ καὶ παραμυθούμενοι αὐτήν.)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ιδόντες τὴν Μαριάμ ὅτι ταχέως ἀνέστη καὶ ἐξῆλθεν.)
그녀가 울기 위해 무덤으로 떠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ἠκολούθησαν αὐτῇ δόξαντες ὅτι ὑπάγει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ἵνα κλαύσῃ ἐκεῖ.)
- (32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그를 보았고 그의 발을 향해 엎드리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Ἡ οὖν Μαριάμ ὡς ἦλθεν ὅπου ἦν Ἰησοῦς ἰδοῦσα αὐτὸν ἔπεσεν αὐτοῦ πρὸς τοὺς πόδας λέγουσα αὐτῷ·)
주여 만약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κύριε, εἰ ἦς ὧδε οὐκ ἂν μου ἀπέθανεν ὁ ἀδελφός.)

- (33절) 그런데 예수께서 울고 있는 그녀와 그녀와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고는 (Ἰησοῦς οὖν ὡς εἶδεν αὐτὴν κλαίουσαν καὶ τοὺς συνελθόντας αὐτῇ Ἰουδαίους κλαίοντας) 그 심령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그 스스로가 힘들어 하셨습니다 (ἐνεβριμήσατο τῷ πνεύματι καὶ ἐτάραξεν ἑαυτὸν)
- (34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καὶ εἶπεν·) 당신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소? (ποῦ θεθείκατε αὐτόν·) 그들이 말하기를 (λέγουσιν αὐτῷ·) 주여 가서 보시지요 (κύριε, ἔρχου καὶ ἴδε.)
- (35절)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ἐδάκρυσεν ὁ Ἰησοῦς.)
- (36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ἔλεγ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보라 그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ἴδε πῶς ἐφίλει αὐτόν·)
- (37절)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τινὲς δὲ ἐξ αὐτῶν εἶπαν·)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이 있는 그가 그[나사]를 죽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셨느냐? (οὐκ ἐδύνατο οὗτος ὁ ἀνοίξας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τοῦ τυφλοῦ ποιῆσαι ἵνα καὶ οὗτος μὴ ἀποθάνῃ·)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2 절을 읽으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보고는 그의 발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만약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말은 이것이 다입니다.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앞서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똑같은 말을 한 후 “[그러나] 저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살려 달라는 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흐느껴 울 뿐입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상반된 반응을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독자들에게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 방식을 통해 무엇을 보여 주려고 했을까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힘든 상황을 토로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과는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나아가 왜 그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음을 인정하는 시점에서부터 비로소 경험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안이 없다는 생각,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조차도 사라진 그 시점에서부터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사라진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조차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여 만약 당신이 여기

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은 원망의 말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말도 아닙니다. 그저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자조 섞인 한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에 대한 간단한 지식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도리만 듣고서는 문자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다기보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우상 숭배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구나!’, ‘무엇을 해도 나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라는 자신의 실존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자식도 모두 나의 우상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려는 나의 욕망조차 우상임을 깨닫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우상이고 더 나아가 나 자신조차도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물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음이며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 내세울 것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고백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한 세대가 채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제자들도 자의든 타의든 정들었던 예루살렘을 떠나 낯선 이방 땅에서 모진 핍박과 비난과 수모를 견뎌가며 묵묵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반겨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친형제 야고보가 헤롯왕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목격했고, 친구이자 동역자이던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앞만 보고 복음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주변의 수많은 형제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다 그렇게 죽어 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한 마디, 그들의 마음에 메아리쳐 울리는 한 마디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만약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동역자나 형제들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요한의 믿음이 약해져서 한 자조 섞인 말도 아니지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택한 자,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바꾸자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하나님의 뜻, 그의 진리를 자신의 마음에 담는 것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늘 진리에 적대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깨달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이질적인 존재가 되라고 주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색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색해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세상이 어색하고 또한 세상이 당신을 어색해 하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무엇에 절망하는가?(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11:28~37)

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4.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원문해석하기

- (28절) 그리고 이 말을 한 후 (Καὶ τοῦτο εἰποῦσα)
그녀는 떠나서 그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ἀπῆλθεν καὶ ἐρώνησεν Μαριάμ τὴν ἀδελφὴν αὐτῆς λάθρᾳ εἰποῦσα·)
선생님이 도착하셔서 너를 부르다 (ὁ διδάσκαλος πάρεστιν καὶ φωνεῖ σε.)
- (29절)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듣자마자 (ἐκείνη δὲ ὡς ἤκουσεν)
급히 일어나게 되어 그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ἠέρεθη ταχὺ καὶ ἤρχετο πρὸς αὐτόν.)
- (30절) 예수님은 아직 그 마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시다 (οὐπω δὲ ἐληλύθει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ὴν κώμην.)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마르다가 그를 만나던 그 장소에 계셨습니다
(ἀλλ' ἦν ἔτι ἐν τῷ τόπῳ ὅπου ὑπήνησεν αὐτῷ ἡ Μάρθα.)
- (31절) 그런데 그녀와 함께 집에 있어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οἱ οὖν Ἰουδαῖοι οἱ ὄντες μετ' αὐτῆς ἐν τῇ οἰκίᾳ καὶ παραμυθούμενοι αὐτήν.)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ιδόντες τὴν Μαριάμ ὅτι ταχέως ἀνέστη καὶ ἐξῆλθεν.)
그녀가 울기 위해 무덤으로 떠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따라 나섰습시다
(ἠκολούθησαν αὐτῇ δόξαντες ὅτι ὑπάγει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ἵνα κλαύσῃ ἐκεῖ.)
- (32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그를 보았고 그의 발을 향해 엎드리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Ἡ οὖν Μαριάμ ὡς ἦλθεν ὅπου ἦν Ἰησοῦς ἰδοῦσα αὐτόν ἔπεσεν αὐτοῦ πρὸς τοὺς πόδας λέγουσα αὐτῷ·)
주여 만약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κύριε, εἰ ἦς ὧδε οὐκ ἂν μου ἀπέθανεν ὁ ἀδελφός.)

- (33절) 그런데 예수께서 울고 있는 그녀와 그녀와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고는 (Ἰησοῦς οὖν ὡς εἶδεν αὐτὴν κλαίουσαν καὶ τοὺς συνελθόντας αὐτῇ Ἰουδαίους κλαίοντας)
 그 심령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스스로가 힘들어 하셨습니다
 (ἐνεβριμήσατο τῷ πνεύματι καὶ ἐτάραξεν ἑαυτὸν)
- (34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καὶ εἶπεν·)
 당신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소? (ποῦ θεθείκατε αὐτόν·)
 그들이 말하기를 (λέγουσιν αὐτῷ·)
 주여 가서 보시지요 (κύριε, ἔρχου καὶ ἴδε.)
- (35절)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ἐδάκρυσεν ὁ Ἰησοῦς.)
- (36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ἔλεγ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보라 그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ἴδε πῶς ἐφίλει αὐτόν·)
- (37절)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τινὲς δὲ ἐξ αὐτῶν εἶπαν·)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이 있는 그가 그[나사로]를 죽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셨느냐?
 (οὐκ ἐδύνατο οὗτος ὁ ἀνοίξας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τοῦ τυφλοῦ ποιῆσαι ἵνα καὶ οὗτος μὴ ἀποθάνῃ·)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3 절을 읽으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려 울고만 있었고 그를 따라 온 유대인들도 역시 그녀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심령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스스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심령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ἐνεβριμήσατο τῷ πνεύματι, 에넵리메사토 토 프 네마티), “스스로가 힘들어 하셨다” (ἐτάραξεν ἑαυτὸν, 에타라켄 헤마우톤)라고 하신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노로 인해 그의 심령 (Spirit)이 움직이게 되셨고 스스로가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해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 슬퍼하셨을까요? 오라비의 죽음으로 인해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와 그 곁에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왜 화가 나고 힘들어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선불리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일부러 베다니 행을 늦추셨고, 나사로가 죽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결론내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를 맞춰 당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서 화를 내고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힘들어 하셨다고 해석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시지만 그래도 지금은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유대인들과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 주시고자 그랬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모두가 인간 중심적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신 이유는 죽음이 곧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모두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의 감정이 나사로를 잃고

슬퍼하는 그들에 대한 공감과 한데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공감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더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힘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인간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치는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매일을 눈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절망이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현재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찾아옵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이 나에게 절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한 것들은 대개가 세상적인 것이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내 소망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보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원치 않는 일들은 자신의 삶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자기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부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야 하며, 몸은 건강해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자식은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는 멋진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삶에 대한 우리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힘들어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 판단되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교회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라고 가르칩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토록 힘들어 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발견되는 것이 '거짓된 자기 자신'입니다. 흔히 '거짓 자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거짓 자아는 늘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조종합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는 거짓 자아를 추구하는 강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정진해 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렇기에 거짓 자아를 내려 놓는다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거짓된 모습, 나의 참 모습이 아닌 포장된 나를 버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거짓된 것들을 벗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의 과정은 신자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하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체험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여 현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눈물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11:28~37)

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4.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원문해석하기

- (28절) 그리고 이 말을 한 후 (Καὶ τοῦτο εἰπούσα)
그녀는 떠나서 그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ἀπῆλθεν καὶ ἐρώνησεν Μαριάμ τὴν ἀδελφὴν αὐτῆς λάθρᾳ εἰπούσα·)
선생님이 도착하셔서 너를 부르다 (ὁ διδάσκαλος πάρεστιν καὶ φωνεῖ σε.)
- (29절)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듣자마자 (ἐκείνη δὲ ὡς ἤκουσεν)
급히 일어나게 되어 그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ἠέρεθη ταχὺ καὶ ἤρχετο πρὸς αὐτόν.)
- (30절) 예수님은 아직 그 마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시다 (οὐπω δὲ ἐληλύθει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ὴν κώμην.)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마르다가 그를 만나던 그 장소에 계셨습니다
(ἀλλ' ἦν ἔτι ἐν τῷ τόπῳ ὅπου ὑπήνησεν αὐτῷ ἡ Μάρθα.)
- (31절) 그런데 그녀와 함께 집에 있어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οἱ οὖν Ἰουδαῖοι οἱ ὄντες μετ' αὐτῆς ἐν τῇ οἰκίᾳ καὶ παραμυθούμενοι αὐτήν.)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ιδόντες τὴν Μαριάμ ὅτι ταχέως ἀνέστη καὶ ἐξῆλθεν.)
그녀가 울기 위해 무덤으로 떠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따라 나섰습시다
(ἠκολούθησαν αὐτῇ δόξαντες ὅτι ὑπάγει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ἵνα κλαύσῃ ἐκεῖ.)
- (32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그를 보았고 그의 발을 향해 엎드리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Ἡ οὖν Μαριάμ ὡς ἦλθεν ὅπου ἦν Ἰησοῦς ἰδοῦσα αὐτόν ἔπεσεν αὐτοῦ πρὸς τοὺς πόδας λέγουσα αὐτῷ·)
주여 만약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κύριε, εἰ ἦς ὧδε οὐκ ἂν μου ἀπέθανεν ὁ ἀδελφός.)

- (33절) 그런데 예수께서 울고 있는 그녀와 그녀와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고는 (Ἰησοῦς οὖν ὡς εἶδεν αὐτὴν κλαίουσαν καὶ τοὺς συνελθόντας αὐτῇ Ἰουδαίους κλαίοντας)
 그 심령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스스로가 힘들어 하셨습니다
 (ἐνεβριμήσατο τῷ πνεύματι καὶ ἐτάραξεν ἑαυτὸν)
- (34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καὶ εἶπεν·)
 당신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소? (ποῦ θεθείκατε αὐτόν·)
 그들이 말하기를 (λέγουσιν αὐτῷ·)
 주여 가서 보시지요 (κύριε, ἔρχου καὶ ἴδε.)
- (35절)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ἐδάκρυσεν ὁ Ἰησοῦς.)
- (36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ἔλεγ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보라 그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ἴδε πῶς ἐφίλει αὐτόν·)
- (37절)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τινὲς δὲ ἐξ αὐτῶν εἶπαν·)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이 있는 그가 [나사로]를 죽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셨느냐?
 (οὐκ ἐδύνατο οὗτος ὁ ἀνοίξας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τοῦ τυφλοῦ ποιῆσαι ἵνα καὶ οὗτος μὴ ἀποθάνῃ·)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소?”라고 질문하시자 그들이 “주여, 가보시지요”라고 대답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마리아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소?”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무덤에 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 암시하고 있음을 눈치채야 합니다.

33 절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통분하시고 스스로 힘들어 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를 어디 두었냐고 물어 보십니다. 당연히 그들은 나사로를 무덤에 두었습니다. 무덤은 절망조차 사라진 영원한 이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가 어딘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현실,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의 현재 모습에 대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부분을 읽을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당연히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질문하시는 이유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와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질문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사로를 무덤에 두었는가?”라고 묻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만

약 질문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마리아를 비롯한 그들의 대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는 죽은 자에게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썩어 없어질 시신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시신이 있어야 할 무덤에 든 것입니다!”라고 말이지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가 보시지요”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안내할 때 사용한 “와 보라” (1:46)라고 한 말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헬라어에서 ‘오 고 가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는 ‘에르코마이’(ἐρχομαι)인데 두 군데 모두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글을 쓰다가 우연히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와서 보면’ 또는 ‘가서 보면’ 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는지, 왜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 들 수 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1 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빌립이 한 말을 통해 나다나엘은 결국 누구를 만났으며 무엇을 깨달았나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한 말을 통해 그들이 예수께 보여주고자 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35 절을 읽으십시오. 저자인 요한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예수님이 우셨습니다”(ἐδάκρυσεν ὁ Ἰησοῦς)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이 있고 잠시 후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실 것이지만 지금 슬픈 것은 슬픈 것이기에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우셨다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신 내용이 기록된 곳은 누가복음 19 장 41 절과 이곳 단 두 군데뿐입니다. 둘 모두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는데 먼저 누가복음에 적힌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⁴¹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⁴²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⁴³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⁴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눅 19:41-44).

여기서 ‘우셨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는 ‘에클라우센’(ἐκλάουσεν)으로 이 단어는 ‘클라이오’(κλαίω)의 3인칭 단수 aorist 형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무너져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그 앞에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추구해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를 예수님의 울음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 ‘우셨습니다’라는 표현은 ‘에다크루센’(ἐδάκρυσεν)으로 ‘다크루오’(δακρῶω)의 3인칭 단수 aorist 형이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동사가 20 장에도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우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¹¹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¹²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¹³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 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요 20:11-13).

여기에 쓰인 동사는 모두 누가복음 19 장에 사용된 동사와 같은 ‘클라이오’(κλαίω)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이 대목에서 우는 것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사 ‘클라이오’(κλαίω) 대신 전혀 다른 동사인 ‘다크루오’(δακρύνω)를 사용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다크루오’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진짜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될 것을 까맣게 모른 채 지금 그의 죽음에 절망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눈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수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살이에 힘들어 하고 아파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일부러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모른 채 그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을 보시며 심히 슬퍼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인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11:28~37)

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4.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원문 해석하기

- (28절) 그리고 이 말을 한 후 (Καὶ τοῦτο εἰποῦσα)
그녀는 떠나서 그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ἀπῆλθεν καὶ ἐρώνησεν Μαριάμ τὴν ἀδελφὴν αὐτῆς λάθρᾳ εἰποῦσα·)
선생님이 도착하셔서 너를 부르다 (ὁ διδάσκαλος πάρεστιν καὶ φωνεῖ σε.)
- (29절)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듣자마자 (ἐκείνη δὲ ὡς ἤκουσεν)
급히 일어나게 되어 그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ἠέρεθη ταχὺ καὶ ἦρχετο πρὸς αὐτόν.)
- (30절) 예수님은 아직 그 마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시다 (οὐπω δὲ ἐληλύθει ὁ Ἰησοῦς εἰς τὴν κώμην.)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마르다가 그를 만나던 그 장소에 계셨습니다
(ἀλλ' ἦν ἔτι ἐν τῷ τόπῳ ὅπου ὑπήνησεν αὐτῷ ἡ Μάρθα.)
- (31절) 그런데 그녀와 함께 집에 있어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οἱ οὖν Ἰουδαῖοι οἱ ὄντες μετ' αὐτῆς ἐν τῇ οἰκίᾳ καὶ παραμυθούμενοι αὐτήν.)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ιδόντες τὴν Μαριάμ ὅτι ταχέως ἀνέστη καὶ ἐξῆλθεν.)
그녀가 울기 위해 무덤으로 떠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따라 나섰습시다
(ἠκολούθησαν αὐτῇ δόξαντες ὅτι ὑπάγει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ἵνα κλαύσῃ ἐκεῖ.)
- (32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그를 보았고 그의 발을 향해 엎드리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Ἡ οὖν Μαριάμ ὡς ἦλθεν ὅπου ἦν Ἰησοῦς ἰδοῦσα αὐτόν ἔπεσεν αὐτοῦ πρὸς τοὺς πόδας λέγουσα αὐτῷ·)
주여 만약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κύριε, εἰ ἦς ὧδε οὐκ ἂν μου ἀπέθανεν ὁ ἀδελφός.)

- (33절) 그런데 예수께서 울고 있는 그녀와 그녀와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고는 (Ἰησοῦς οὖν ὡς εἶδεν αὐτὴν κλαίουσαν καὶ τοὺς συνελθόντας αὐτῇ Ἰουδαίους κλαίοντας)
 그 심령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스스로가 힘들어 하셨습니다
 (ἐνεβριμήσατο τῷ πνεύματι καὶ ἐτάραξεν ἑαυτὸν)
- (34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καὶ εἶπεν·)
 당신들이 그를 어디에 두었소? (ποῦ θεθείκατε αὐτόν·)
 그들이 말하기를 (λέγουσιν αὐτῷ·)
 주여 가서 보시지요 (κύριε, ἔρχου καὶ ἴδε.)
- (35절)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ἐδάκρυσεν ὁ Ἰησοῦς.)
- (36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ἔλεγ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보라 그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는지를 (ἴδε πῶς ἐφίλει αὐτόν·)
- (37절)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τινὲς δὲ ἐξ αὐτῶν εἶπαν·)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이 있는 그가 그[나사로]를 죽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셨느냐?
 (οὐκ ἐδύνατο οὗτος ὁ ἀνοίξας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τοῦ τυφλοῦ ποιῆσαι ἵνα καὶ οὗτος μὴ ἀποθάνῃ·)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6 절과 3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울음이 사랑하는 나사로에 대한 슬픔의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그룹은 그와는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이 있는 그가 그[나사로]를 죽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기 전에 살리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신은 어느 편의 의견을 지지하는지 적어 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에 대한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당시 요한이 속했던 크리스찬 공동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 극심한 환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고난을 당한 것이지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당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도 나 몰라라 눈감고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교회를 매우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교회를 도와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과거 한때 그들을 사랑했던 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한 동사

와 그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라 그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는지를”(ὡς πῶς ἐράλει αὐτόν, 이데 포스 에 필레이 아우톤)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동사로는 친구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말인 필레오를 사용하였고 또한 과거 불완전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로 놀러 갔다고 칩시다. 도착하니 마침 비가 내려서 놀지 못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곳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되돌아 왔다. 그러나 지금은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이 그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매우 친근하게 사랑한 건 맞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나사가 죽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신데다 죽은 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고작 그들 앞에서 우는 것뿐이니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이 아직도 나사로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요한이 살았던 당시 크리스찬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구원을 받아 공동체(교회)에 속했지만 곧 그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고난에 개입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방치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 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한 때 당신들을 사랑했었지... 그런데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견디기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온전히 믿음을 지켜내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나요?

그렇기에 유대인들 중에는 앞의 반응과 전혀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이 있는 그가 그[나사로]를 죽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셨느냐?”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랑이나 관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앞의 그룹은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동안만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전지전능하다면 절대로 나사로를 죽게 방치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회의는 결국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맞느냐?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나아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등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은 초대 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였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위해 투자합니다. 보장도 되지 않는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바보들이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이 본문에 등장한 두 번째 그룹이 보여준 반응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 믿음을 가지고 무가치한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전통마저도 해치고 있다고 비아냥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과 내세를 중시하기보다는 현세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심지어 신앙조차 현세에 초점을 맞추어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마치 지금 이 지구상에서 숨쉬고 사는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이지요. 당신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현재 자신이 가장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현실과 믿음 사이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1:38~44)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38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스스로 통분히 여기시고 무덤을 행해 가셨습니다 (Ἰησοῦς οὖν πάλιν ἐμβρομώμενος ἐν ἑαυτῷ ἔρχεται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그러나 그것은 굴이었습시다 (ἦν δὲ σπήλαιον)
그리고 그 앞에 돌이 막고 (놓여) 있었습시다 (καὶ λίθος ἐπέκειτο ἐπ' αὐτῷ.)
-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ὁ Ἰησοῦς·)
그 돌을 치우십시오 (ἄρατε τὸν λίθον.)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ἀδελφὴ τοῦ τελευτηκότος Μάρθα·)
주여! 이미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흘째입니다 (κύριε, ἤδη ὄζει, τεταρταῖος γάρ ἐστιν.)
- (40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내가 너에게 ‘만약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οὐκ εἶπόν σοι ὅτι ἐὰν πιστεύσῃς ὄψῃ τὴν δόξαν τοῦ θεοῦ·)
- (41절)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내었습니다 (ἦραν οὖν τὸν λίθον.)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위로 들어 올리고 말씀하셨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ἤρε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ἄνω καὶ εἶπεν·)
아버지, 나의 [요청을] 들어 주심에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πάτερ, εὐχαριστῶ σοι ὅτι ἤκουσάς μου.)
- (42절) 그리고 당신이 나의 말을 항상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왔습니다
(ἐγὼ δὲ ἤδην ὅτι πάντοτε μου ἀκούεις·)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ὁλλὰ διὰ τὸν ὄχλον τὸν περιεσῶτα εἶπον·)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ἵνα πιστεύσωσιν ὅτι σὺ με ἀπέστειλας·)
- (43절) 이 말씀을 하신 후 큰소리로 외치셨습니다 (καὶ ταῦτα εἰπὼν φωνῇ μεγάλῃ ἐκρούασεν·)

나사로야! 나오라 (Λάζαρε, δεῦρο ἔξω.)

(44절) 죽은 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ἐξῆλθεν ὁ τεθνηκώς)

묶는 것으로 발과 손이 묶인 채 (δεδεμένος τοὺς πόδας καὶ τὰς χεῖρας κειρίαις)

그리고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진 채 (καὶ ἡ ὄψις αὐτοῦ σουδαρίῳ περιεδέδετο.)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그를 풀어 주어라 그리고 그를 다니도록 놓아주어라 (λύσατε αὐτὸν καὶ ἄρατε αὐτὸν ὑπάγει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8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로부터 조롱에 가까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통분하며 나사로의 시신이 놓여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사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이런 조롱섞인 말은 당시 예수님의 무책임함, 일관성 없음, 또는 무능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지만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한 비아냥이기도 했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 하나를 간직한 채 묵묵히 콜로세움으로 향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들의 비웃음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조롱섞인 말을 뒤로한 채 묵묵히 무덤으로 걸어가십니다. 나사로가 놓여 있는 그 무덤은 굴이었고 그 앞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문법적으로 과거의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불완전 과거 동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굴로 된 무덤이었고 그 앞이 돌로 막혀 있었다는 말을 불완전 과거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 그 행위가 완료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 나사로의 시신이 무덤에 있는 것과 그 앞이 돌로 막혀 있다는 것은 현재의 일시적 사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한정적 상황인 거지요. 요한은 동사의 관점을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무덤도 그 앞에 놓인 돌도 더 이상 아무런 장애가 아니며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나사로의 무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 시신을 모셔 두었던 예수님의 무덤을 연상케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시신도 굴로 된 무덤에 안치되었고 돌로 그 앞을 막아두었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무덤은 당시에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무덤의 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한 이유는 ‘굴’이 단지 죽은 자를 안치하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쓰던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을 피해 굴을 파서 들어가 은거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굴은 무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은신처라는 당시 상황과도 맞닿아 있기에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은 죽은 채로 굴에 안치되어 돌로 막아놓음으로써 이제는 가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현실이 결코 절망할 현실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도 일시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현실에 절망해서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체념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 오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요한은 그런 파도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니까요.

3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치우십시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미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흘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돌은 무덤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시신이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돌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시신은 둘 다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절망적 현실에 개입해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개입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개입은 인류 역사, 호 코스모스(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각 개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도 삶 속에서 반드시 나사로와 같은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있어 절망적 상황이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최선을 다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 때 인간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가서야 우리는 내면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아둥바둥 벗어나려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치병인 거지요. 그런 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간절한 요청을 거절당합니다. 우리는 흔히 들기도와 응답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하던 대로 되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상황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은 그 상황을 나도 원치 않고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기 자녀들이 고난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지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한 가닥 남아 있던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린 상태에 있나요? 절망과 어두움이 삶을 지배해서 늘 자신의 불행만을 목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은 삶이 지속되어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고국 유다, 그리고 그 멸망을 막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진두지휘하여 멸망에 앞장서시는 듯 보이는 하나님을 보며 마침내 그분의 참 뜻을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¹⁶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 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¹⁷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도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¹⁸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¹⁹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합3:16-19).

현실 앞에서 언제까지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언제까지 버둥대며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 건가요? 그 현실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1:38~44)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원문 해석하기

- (38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스스로 통분히 여기시고 무덤을 행해 가셨습니다 (Ἰησοῦς οὖν πάλιν ἐμβριμώμενος ἐν ἑαυτῷ ἔρχεται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그러나 그것은 굴이었습디다 (ἦν δὲ σπήλαιον)
그리고 그 앞에 돌이 막고 (놓여) 있었습디다 (καὶ λίθος ἐπέκειτο ἐπ' αὐτῷ.)
-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ὁ Ἰησοῦς·)
그 돌을 치우십시오 (ἄρατε τὸν λίθον.)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ἀδελφὴ τοῦ τετελευτηκότος Μάρθα·)
주여! 이미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홀제입니다 (κύριε, ἤδη ὀζει, τεταρτάκις γάρ ἐστιν.)
- (40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내가 너에게 '만약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οὐκ εἶπόν σοι ὅτι ἐὰν πιστεύσῃς ὄψει τὴν δόξαν τοῦ θεοῦ·)
- (41절)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내었습니다 (ἦραν οὖν τὸν λίθον.)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위로 들어 올리고 말씀하셨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ᾔρε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ἄνω καὶ εἶπεν·)
아버지, 나의 [요청을] 들어 주심에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πάτερ, εὐχαριστῶ σοι ὅτι ἤκουσάς μου.)
- (42절) 그리고 당신이 나의 말을 항상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왔습니다
(ἐγὼ δὲ ᾔδειν ὅτι πάντοτέ μου ἀκούεις·)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ἀλλὰ διὰ τὸν ὄχλον τὸν περιεστώτα εἶπον·)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ἵνα πιστεύσωσιν ὅτι σὺ με ἀπέστειλας.)

- (43절) 이 말씀을 하신 후 큰소리로 외치셨습니다 (καὶ ταῦτα εἰπὼν φωνῇ μεγάλῃ ἐκρούγασεν)
 나사로야! 나오라 (Λάζαρε, δεῦρο ἕξω.)
- (44절) 죽은 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ἐξῆλθεν ὁ τεθνηκώς)
 묶는 것으로 발과 손이 묶인 채 (δεδεμένος τοὺς πόδας καὶ τὰς χεῖρας κειρίας)
 그리고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진 채 (καὶ ἡ ὄψις αὐτοῦ σουδαρίῳ περιεδέδετο.)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그를 풀어 주어라 그리고 그를 다니도록 놓아주어라 (λύσατε αὐτὸν καὶ ἄφετε αὐτὸν ὑπάγει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0 절을 읽으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냄새가 난다는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만약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나사로가 중병으로 죽어갈 때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급히 와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때 그 소식을 전하러 왔던 사람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11:4 참조). 당시 그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을 지금 다시 마르다에게 하신 것은 그녀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의 믿음없음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 즉,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제대로 알아 듣고 깨우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말에 아마도 마르다나 마리아는 안심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로 흘러갔기에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만약 네가 믿으면 (ἐὼν πιστεύσῃς)”이라는 가정을 한 것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마르다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나의 의지의 발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즉, 상황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인간의 주관적 결정에 달린 것으로 생각하여 믿음을 인간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때 교회는 천동설을 가르쳤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처형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주관적 믿음이 너무도 강했기에 모든 것을 그것에 입각해 판단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구는 둥글며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공전한다는 사실은 객관적 진리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주관적 신념이 객관적 실체를 바꾸지는 못하지요.

둘째,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객관적 실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인간은 피동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그때에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즉, 믿음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떠한 실체가 우리 내부로 들어와 그동안 우리를 지탱해 왔던 우리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엡 2:8 참조).

셋째, 믿음이 우리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²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1-2).

우선 히브리서 11장 1절을 살펴보면,

믿음은... Ἔστιν δὲ πίστις ἐλπίζομένων ὑπόστασις, (믿음은 되어질 것들의 본체이다)

πραγμάτων ἔλεγχος οὐ βλεπομένων. (보이지 않는 실체의 증거이다)

믿음에 대한 조작적 정의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faith): 믿음은 장차 현실화 될 것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본체 (hypostasis)**이고 증거 (proof) 다.

이 정의에 따르면 첫째, 믿음은 **본질**이고 실체 (substance)입니다. 인간의 추상적 신념이 아니라 인간 밖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추상명사로서 인간의 신념에 기반한 어떤 행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류의 추상명사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체인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증거**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의미로 쓰인 ἔλεγχος (elegchos)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것의 진실을 위해 실증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증거라는 의미 보다는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는 구체적 행동’을 뜻하지요. 셋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체(hypostasis)와 증거가 미래에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본질이나 그 증거는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며 또한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정리하면, 믿음은 어떤 실체이며,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증거가 제시된 어떤 것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의 집합체이나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어떤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입니다(우리 인간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움직여야만 비로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란 믿음에 의해 믿음 안으로 들어가 믿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철저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기초요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

는 이인 예수”는 헬라어로 τὸν τῆς πίστεως ἀρχηγὸν καὶ τελειωτὴν Ἰησοῦν (톤 테스 피스테오스 아르케곤 카이 텔레이오텐 이에순)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기초이자 완성”이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예수님이 믿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다시 40 절로 돌아가 봅시다. 마르다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보기 전에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그것이 현실화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신념 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영광조차 우리의 애씀이 아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나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사로야 나오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1:38~44)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38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스스로 통분히 여기시고 무덤을 행해 가셨습니다 (Ἰησοῦς οὖν πάλιν ἐμβριμώμενος ἐν ἑαυτῷ ἔρχεται εἰς τὸ μνημεῖον·)
그러나 그것은 굴이었습니니다 (ἦν δὲ σπήλαιον)
그리고 그 앞에 돌이 막고 (놓여) 있었습니니다 (καὶ λίθος ἐπέκειτο ἐπὶ αὐτῷ.)
-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ὁ Ἰησοῦς·)
그 돌을 치우십시오 (ἄρατε τὸν λίθον.)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ἡ ἀδελφὴ τοῦ τετελευτηκότος Μάρθα·)
주여! 이미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홀째입니다 (κύριε, ἤδη ὀζει, τεταρτάκις γάρ ἐστιν.)
- (40절)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내가 너에게 ‘만약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οὐκ εἶπόν σοι ὅτι ἐὰν πιστεύσῃς ὄψει τὴν δόξαν τοῦ θεοῦ·)
- (41절)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내었습니다 (ἦραν οὖν τὸν λίθον.)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위로 들어 올리고 말씀하셨습니다.
(ὁ δὲ Ἰησοῦς ᾗρε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ἄνω καὶ εἶπεν·)
아버지, 나의 [요청을] 들어 주심에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πάτερ, εὐχαριστῶ σοι ὅτι ἤκουσάς μου.)
- (42절) 그리고 당신이 나의 말을 항상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왔습니다
(ἐγὼ δὲ ᾗδειν ὅτι πάντοτε μου ἀκούεις·)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ἀλλὰ διὰ τὸν ὄχλον τὸν περιεστώτα εἶπον·)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ἵνα πιστεύσωσιν ὅτι σὺ με ἀπέστειλας.)

- (43절) 이 말씀을 하신 후 큰소리로 외치셨습니다 (καὶ ταῦτα εἰπὼν φωνῇ μεγάλῃ ἐκροάγασεν·)
 나사로야! 나오라 (Λάζαρε, δεῦρο ἕξω.)
- (44절) 죽은 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ἐξῆλθεν ὁ τεθνηκώς)
 묶는 것으로 발과 손이 묶인 채 (δεδεμένος τοὺς πόδας καὶ τὰς χεῖρας κειρίαις)
 그리고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진 채 (καὶ ἡ ὄψις αὐτοῦ σουδαρίῳ περιεδέδετο.)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그를 풀어 주어라 그리고 그를 다니도록 놓아주어라 (λύσατε αὐτὸν καὶ ἄφετε αὐτὸν ὑπάγει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1-42 절을 읽으십시오. 돌을 치우라는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이 돌을 치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앞에서 서서 눈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요청을] 들어 주심에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말을 항상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청을] 들어 주심에 당신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에코우사스’ (ἤκουσάς)는 ‘듣다’라는 동사의 2인칭 단수 aorist 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와 관련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해석가들이 ‘에코우사스’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요청)을 들어 주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한번도 서로 뜻이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뜻을 세우면 아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하였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치욕스런 죽음까지도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이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코우사스’를 지금까지 모든 사안을 하나님이 들어 주셨다는 일반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어떤 요청을 들어 주신 걸까요?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살리실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어떤 뜻을 세우셨고 그것을 어떻게 알려 주셨을까요?

먼저는 나사로 한 사람을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실 것을 미리 보여 주는 한편,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모두를 다시 살리실 것을 실제로 보여 주기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뜻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사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계시하기 위한 필연적 사건인 것이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지체하신 것도 ‘부활’이라는 엄청난

난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필연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 교회의 고난과 회복,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소재로 쓰시기로 이미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삶의 고난들로 인해 견디기 힘들 때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 허락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생긴 고난이라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그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물론 고난의 과정이 힘들고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43-4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 말에 죽었던 나사로는 살아나서 손발이 묶이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진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다니도록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ὁ τεθνηκός, 호테드네코스)는 (현재)완료형을 사용하여 ‘완전히 영혼이 떠나가 생명이 없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고, 손발이 ‘묶인 채’(δεδεμένος, 데데메노스)는 (현재)완료형, 수동형 분사로 죽은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으며, 수건이 ‘싸매진 채’(περιεδέδετο)는 서술형 동사로 (과거)완료형, 수동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들 동사의 시체에 담긴 의미를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왜 사도 요한이 완료형 동사, 수동형 동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몸은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어떠한 일도 스스로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그 끈과 수건이 여전히 그를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하고 있었고 사물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유스러운 나사로를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나사로처럼 당신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당신을 뽕뽕 묶고 자유를 빼앗아 갔던 것은 어떤 것들이며 당신의 눈을 가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지금은 자유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것들,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이 모두 제거 되었나요? 각자의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수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⁴³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⁴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⁴⁵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⁴⁶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⁴⁷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⁴⁸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3-18).

수건은 우리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율법적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벗겨집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를 풀어 주어라 그리고 그를 다니도록 놓아주어라!”

당신의 손발을 묶고 있고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